

신세대 기혼남녀의 라이프스타일, 가정경영의식 및 행동*

A Study on married new generation's life style, consciousness and behavior towards home management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정우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명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계선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박미석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지금수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교수 김경숙
동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이정숙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박미금

Dept. of Home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 : Jeong Woo Lee

Dept. of Home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 : Myung Cha Kim

Dept. of Home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 : Sun Ja Kye

Dept. of Home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Assistant Prof. : Mee Sok Park

Dept. of Homemanagement Chonbug National Univ.

Prof. : Keum Soo Chi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wandong Univ.

Prof. : Kyung Sook Kim

Dept. of Homemanagement Dong Eui Univ.

Assistant Prof. : Jung Sook Lee

Dept. of Home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Lecturer : Mi Kum Park

< 목 차 >

I. 서론

II. 문헌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참고문헌

* 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본 연구는 “신세대 기혼남녀의 라이프스타일, 가정경영의식 및 행동” 연구의 일부로서 라이프스타일과 가정경영의식 관련부분은 “신세대 기혼남녀의 라이프스타일 및 가정경영의식(이정우 외 7인: 1996)”을 참고하기 바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home management consciousness and home management behavior, identify the diversity of home management behavior of married new generation, and empirically test the variables which affect home management behavior.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1.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ome management consciousness and home management behavior in all of the subarea, family relation, home management, and consumer and financial management.
2. The home management behavior of married new generation men was more modernized and more rational in the area of family relation and home management than those of the counterpart.
3. Among the variables, home management consciousness variable was most important in home management behavior. No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 서론

개인적으로는 발달단계에 따라 정신적·신체적 욕구가 변화하면서 상이한 연령층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행동양식을 가져올 수 있고, 살아온 환경이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관이나 생활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근대화 이후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일어난 급격한 변화가 함께 작용하여 가정생활 뿐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서 세대간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 등에서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긴장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시대나 사회에도 사람들의 가치관, 생활태도, 행동양식은 정지하지 않고 변화하여 세대간의 차이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은 공존하게 되므로 세대간의 차이는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연령층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집단에서는 세대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보편적인 현상이다(한국사회학회, 1990: 75).

특히 신세대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인구집단, 즉 196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에 출생하여 경제성장의 과정속에서 성장한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인구는 94년에 8백45만

여명이며,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4백45만여명 중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1995). 이들 신세대들은 개인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연령층이며, 2000년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선두주자가 될 차세대이며, 가정적으로는 가정을 통솔하며 미래의 한국인을 양육해야 하는 젊은 부모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경제사회의 특징인 대량생산·대량소비의 물결속에서 경제적으로 빈곤을 모른채 풍요속에서 성장을 해온 이들 신세대는 구세대와 확실히 구분되는 가치의식을 갖고 있으며, 행동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즉 전통적인 가치관의 가정교육을 받고, 개인보다는 家를 우선시하며, 남자우위의 인간관계를 지향하며,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구세대와 달리 그들은 남녀평등의식을, 집단 공동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혈연이나 학연 또는 지연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시간을 중시하며 철저히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을 전후하여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상품광고를 통하여서도 신세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신세대 관련 기획물(한국일보사, "신세대-그들은 누구인가?", 1990; 현실문화연구,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1993; 현실문화연구, 신

세대론: 혼돈과 질서, 1994; 동아일보, “신세대”, 1993; 동아일보, “신세대 젊은이”, 1995)이 제작되어 왔으며, 학문적으로도 관심분야에 따라 신세대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승희, 1989; 조혜선, 1990; 한국사회학회, 1990; 김미경, 1993; 조은정, 1994; 김인숙·정용선, 1995; 박재홍, 1995 등). 그러나 이들 연구들이 신세대를 부분적으로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었으나 신세대라고 하는 동시집단으로서의 특성을 배경으로 하여 가정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떻게 가정을 경영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연구된바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성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신세대들의 가정경영행동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정생활전반에 걸쳐서 지니고 있는 가정경영의식은 이들 신세대가 수행하고 있는 가정경영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서 신세대의 가정생활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기혼 신세대는 물론 미래의 가정경영자들이 될 미혼남녀들이 추구하여야 할 바람직한 가정경영의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문헌고찰

1. 가정경영행동

오늘날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의 변화는 빠르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정의 자원획득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달성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가정경영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가정경영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을 효율화시켜줌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문숙재, 1996: 18). 즉 가정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가정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일련의 모든 행위가 가정경영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경영행동을 가족관계, 가정관리, 소비자 및 가계관리의 측면에서 고

찰하고자 한다.

1) 가족관계행동

부부의 역할수행 정도와 가족생활주기에 관련되어 행해진 연구에 의하면, 신혼기 부부의 경우 역할의 공동수행정도가 가장 높고 남편의 정서적 역할수행도도 높게 나타나 평등하고 우애적인 서구의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김효숙, 1988; 김정원, 1986). 또한 동반자적 관계로의 변화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통한 부부공동의 부양자역할수행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과연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하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맞벌이 가족에서 여성은 재정권의 강화로 가정내 역할분담이나 권력관계에서 비교적 대등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견해와(Voydanoff, 1987)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남아있어 여성의 취업이 도리어 역할가중만을 초래해 여성들에게 ‘슈퍼우먼적 역할과다’를 초래하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한경혜, 1994).

한편 남편의 가정내 역할수행정도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남편의 실제 역할수행이 매우 미약하고, 그 영역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에서만 행해지고 있고(문숙재, 1980), 아내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이정수, 1984),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38분으로 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한국여성개발원, 1991) 아직도 성에 따른 역할분담이 부부관계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님을 실증한다고 하겠다. 이렇듯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서구의 평등주의와 혼합되어 의미가 점점 상실되고는 있으나, 부부관계에 있어 의식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이해경, 1986). 정신적·관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서구화되었으나 행동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실정이다.

자녀관을 보더라도 남아선호사상은 그대로 현실로 직결되어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1994년도 신생아의 성비를 살펴보면, 세번째 출산아는 여아 100명 대비 남아수가 205.9로 여아의 두배가량으로

급증했고 네번째 출산아는 무려 237.7명에 달했다. 이처럼 세번째 출산아부터 남녀성비가 극심한 불균형을 보인 것은 두번째 출산때까지 득남을 못할 경우 대부분 태아성별검사를 거쳐 여아중절수술을 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어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와 상반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많이 주지만 아동에게 지나치게 뒷바라지를 해주는 과보호 형태나 아동의 능력과 관심보다는 부모의 요구와 기준에 따라오도록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통제방식으로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남제 외, 1994). 이는 특히 경제성장을 주 목표로 했던 전후세대에 태어나 부모로부터 참된 인간교육에 대해 배운바가 없는 신세대 부모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젊은세대의 친족관계행동은 근친축소형이라 볼 수 있다(이광자, 1988). 그러나 이점이 핵가족화현상에서 기인된 1차적 사회관계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오히려 시가와 친가와와의 근친관계를 밀접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젊은 세대의 경우, 다른 세대보다 근친과의 접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경원, 1989; 이광자, 1988; 전미경, 1993; Rosenthal, 1985), 젊은세대일수록 근친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김성희, 1991; 이경희, 1988). 이는 결혼초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비스와 재정적 도움을 받는 수혜적 입장이라는 점(Sussman, 1985)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시가와와는 의무적인 관계로, 친가와와는 정서적인 관계로 접촉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선주, 1990; 김경원, 1989; 이경희, 1988).

제례의식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 여성도 제사에 참석하는 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제사시간도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한남제 외, 1994). 家長을 대상으로 한 홍현주(1986)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76.2%가 처가제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내 부부관계의 변화나 친족의식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김명나(1989)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과 결혼지속연수에 따라 유

의미한 차이를 보여 20대가 그 이상의 연령집단에 비해, 그리고 결혼연수 5년 이하의 집단이 뚜렷하게 근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젊은세대들은 생활에 지장이 없는 편리한 시각에 제사를 지내며, 2대祖까지 奉祀하고, 제사음식도 관례에 따르기보다 형편에 맞게 간소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근대적인 가치관이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젊은 층의 바쁜 생활로 인해 빚어진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2) 가정관리행동

가정관리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가족의 만족감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활동으로 가정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족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인 가정관리행동이 요구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가족의 욕망과 목표가 다양해짐에 따라 복잡한 환경하에 있는 현대가정에서 합리적인 가정관리행동은 가정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건이 되므로 바람직한 가정관리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정관리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야겠다.

가정관리행동은 생활의 모든 국민인 사회적·심리적·경제적·물질적·정신적·기술적 국면과 관련 있는 과학적 제발견과 지식을 활용하여(Nickell, Rice & Tucker, 1976: 37-38) 가족 및 가족 개개인의 인격형성과 가정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가족과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정문화가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장명욱, 1990: 39).

이러한 가정관리행동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능·열의·인간성에 대한 이해·상상력·판단력·인내력·적응력·자기관리·자기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며(Nickell & Dorsey, 1967: 32), 가정관리를 위해 가정관리자는 계획자로서의 능력·결단력·감독자 역할·교사적 입장 취하기·원만한 가족관계 조성자·풍부한 창의성(이인희, 1983: 54-56) 및 계획수립자·의사결정자·바람직한 소비자·가족의 통솔자·창의성이 풍부한 관리자·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는 행동 또한 필요하다(장

명옥, 1990: 40-44).

가정관리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중 가정관리행동을 행위와 대상별로 나누어 구성된 酒井(1969)의 척도를 응용하여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한상순, 1979; 이정우, 1980; 김경숙, 1993 외 다수)에서 행위별로 보면 계획·조정·통제·지도·교시·평가 행동 중에서 통제 행동 수준이 높고 계획 행동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로 보면 애정·기질·지식 및 기능·시간·금전·의복·음식물·주거·가정설비 및 공공시설·체력 중에서 의복·애정·금전에 대한 관리 행동 수준이 높고 시간·지식 및 기능에 대한 관리 행동 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는 물론 가정에서도 중요한 관심 영역이 된 환경문제와 관련된 연구(장혜경; 1992)에서 에너지 소비절약 행동의 수행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의 재활용행동의 수행수준도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교육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에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정관리행동 유형을 분류하여 가정관리를 분석한 연구들은 변화의 수용여부에 따라 행동유형을 두가지 또는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왔는데 두가지 행동유형, 즉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으로, 연구결과 안정지향형(최동숙, 1991; 이안나 외, 1991; 외 다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비자 및 가게관리행동

소비자행동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상호관련 및 환경적 요인의 제약하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심리과정·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재화 및 서비스에의 접근, 구매, 사용과 이에따른 경험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일련의 행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Zaltman, 1983).

신세대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한 소비문화는 과거 과시형의 무분별했던 소비형태가 버블경제의 붕괴이후 합리적 소비로 변화하는 경향이다(김미경, 1993).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비행동의 하나로 과시소비를 연구한 백경미(1995)는 과시소비란 제품·

서비스의 상징성을 통해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타인에게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구매 사용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물질주의성향이 과시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송인숙(1993)도 증독적 구매는 지속적으로 소비자가 지나치게 소비에 이끌려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구매로 경제적 파산을 야기하는 등의 부정적인 구매행동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증독구매를 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의식이 강화되어 있지 못하며, 학력이 낮을수록 소비자 의식이 낮고 소비자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며, 가정에서는 질적 향상을 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에는 물질주의성향을 억제하여 과시소비를 지양하는 건전한 소비자 의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와 책임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인식이 높고, 소비자문제를 해결할때 고발센터를 이용한 교환요구, 강력한 환불요구 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계선자, 1987). 또한 Berkowitz와 Lutterman(1978)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행동을 하며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운아(1988)도 연령과 소비자 역할수행수준과는 부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면서 신세대의 합리적인 소비자 역할수행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신세대 소비자의 가게관리행동을 살펴보면 연령이 적을수록 소비자 구매기능이 높게 나타났다(Metzen, 1963). 또한 선행연구(남은주, 1983; 노자경·최은숙, 1995)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금전관리행동과 구매행동 등의 소비자행동이 건전하며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Ⅲ. 연구방법

1. 용어 정의

1) 신세대 기혼남녀: 1960년대 이후에 출생하여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려 왔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부문에서 변화를 경험하면서 성장한 사람들로써 1995년 현재 만35세 이하의 기혼자로 한정한다.

2) 라이프 스타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태도나 생활목표 등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활전반에 대한 활동, 관심, 의견의 종합적인 구조화된 체계를 의미한다.

3) 가정경영의식

가족관계의식: 가족내에서는 부부간·부모자녀와 친족간의 관계에서 평등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정도와 가정의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식 정도를 의미한다.

가정관리의식: 가정관리자로서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창의적으로 가정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관리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식정도를 의미한다.

소비자 및 가계관리자의식: 신세대 기혼남녀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사용하는데 나타나는 심리적 성향과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합리적인 가계관리에 대한 의식정도를 의미한다.

4) 가정경영행동

가족관계행동: 가족내에서 부부간, 부모자녀, 친족간의 관계 및 가정의례에서의 근대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가정관리행동: 가족의 가치나 목표, 그리고 표준에 근거해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조함으로써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소비자 및 가계관리행동: 신세대 주부들이 개인 또는 가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예산 및 지출을 하며, 제품·서비스를 실제로 구매·사용하는 소비자 역할 수행을 의미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경영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가정경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경영행동에 대한 독립변인군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 라이프스타일 변인, 가정경영의식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조사도구,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가정경영의식과 행동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척도의 문항 및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라이프스타일 조사항목은 AIO(Activities, Interest, Opinions)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Plummer(1974), 김혜연(1986), 류정순(1991), 성혜영(1993)의 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라이프스타일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정경영의식 중 가족관계 의식과 행동은 옥선화(1989), 이정연(1991), 유영주(1989)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근대적인 의식 또는 행동 성향을 의미한다.

가정관리영역은 장명옥(1976), 현미정(1990), 이정숙(1994), 김미정(1994)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관리 의식과 행동이 우수하고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 및 가계관리영역은 Metzen(1963), 이기춘(1988), 박운아(1988), 장혜경(1992), 조은정(1994)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였으며,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세대 기혼남녀의 소비자 및 가계관리 의식과 행동이 효율적·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척도의 영역별 신뢰도

변 인	하위 영역	신뢰도 계수	변 인	하위 영역	신뢰도 계수	변 인	하위 영역	신뢰도 계수
라이프 스타일	유행추구형	$\alpha = .72$	가정 경영 의식	가족관계	$\alpha = .54$	가정 경영 행동	가족관계	$\alpha = .42$
	개성중시형	$\alpha = .42$		가정관리	$\alpha = .87$		가정관리	$\alpha = .75$
	변화지향형	$\alpha = .66$		소비자 및 가계관리	$\alpha = .75$		소비자 및 가계관리	$\alpha = .76$
	적극활동형	$\alpha = .58$						
	전 체	$\alpha = .78$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남자: 811명 여자: 834명)

변 인	구 분	빈 도 (%)		변 인	구 분	빈 도 (%)	
		남	녀			남	녀
연 령	30세 이하	112(13.8)	250(30.0)	자녀수	없음	52(6.4)	41(4.9)
	31~33세	214(26.4)	339(40.6)		1명	259(31.9)	211(25.3)
	34세 이상	485(59.8)	245(29.4)		2명 이상	500(61.7)	582(69.8)
학 령	고졸 이하	227(28.0)	355(42.6)	용돈유무	유	/	202(24.2)
	대졸 이상	584(72.0)	479(57.4)		무		632(75.8)
가족형태	핵가족	678(84.7)	714(85.6)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11(13.7)	105(12.6)
	확대가족	124(15.3)	120(14.4)		100~150만원 미만	228(28.1)	221(26.5)
직업유무	유	/	328(39.3)		150~200만원 미만	259(31.9)	270(32.4)
	무		506(60.7)		200~250만원 미만	77(9.5)	83(10.0)
					250만원 이상	136(16.8)	155(18.6)
직 업	전문·관리직	232(28.6)	/	거주지역	서울시	353(43.5)	316(37.9)
	사무직	276(34.0)			부산·광주·대전(광역시)	251(30.9)	293(35.1)
	기능·서비스직	303(37.4)			강릉·전주(중소도시)	207(25.5)	225(27.0)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전주, 강릉의 6개 도시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하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1995년 12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남녀 각각 1200부씩 총 2400부의 질문지 중 1845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1645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빈도, 백분율, Cronbach의 α 계수,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2〉과 같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경영행동

1)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경영행동의 일반적 경향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경영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신세대 기혼남성이 유

〈표 3〉 가정경영행동의 일반적 경향

(5점 만점)

조사대상자	가정경영행동	빈도	가족관계	가정관리	소비자·가계관리
			M	M	M
남자		811	3.54	3.53	3.21
여자		834	3.40	3.47	3.23
t값 및 계		1645	-7.69 ***	-2.39*	1.10

* * p < .05 ** p < .01 *** p < .001

의하게 높은 점수($P < .001$)를 나타내, 신세대 기혼남성이 신세대 기혼여성보다 평등하고 근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세대 기혼남성들이 변화하는 사회분위기를 마치 자신의 행동으로 인식하고 응답하였거나 또는 자신들의 행동을 기성세대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보다 근대적이라는 생각에서 기인된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지금까지의 의식을 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한국여성개발원, 1993; 이형실·옥선화, 1985 외 다수) 여성들이 더 근대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신세대 여성들의 경우 의식과 행동간에 Gap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세대 여성들의 의식이 행동으로 실제로 연계 표출됨에 있어서 제약이 무엇인지를 밝혀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신세대 여성들 스스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용기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제약이나 구속이 존재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교육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둘째, 가정관리 영역의 경우, 신세대 기혼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P < .05$)를 나타내었다. 즉 신세대 기혼남성이 여성보다 더 합리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사발전, 사회기여'를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회에서의 성공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투자하는 반면 가정일은 아내의 몫으로 미루어 온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개인적 행복 추구,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시간과 여유를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여 삶의 질 향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신세대 남성들의 경우 가정일은 부부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가정운영에도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결과로 생각된다.

세째, 신세대 기혼남녀의 소비자 및 가계관리행동은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가정영역 중 가정의 자원을 실제로 획득·사용·처분하는 가정의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성장과정에서 기성세대보다 소비문화에 익숙하게 소비자로서의 사회화과정을 경험한 이들 신세대들에게는 성별의 차이는 의미있는 영향요인이 아니고 신세대라고하는 동시집단의 특성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경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신세대 기혼남성의 가정경영행동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1) 가족관계행동

신세대 기혼남성의 경우 연령($\beta = -.08$)이 어릴수록, 학력($\beta = .07$)이 높을수록, 남녀평등($\beta = .25$)·자녀양육($\beta = .11$)·친족관계($\beta = .07$) 등의 가족관계의식이 근대적일수록, 적극활동형($\beta = .20$)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강할수록 가족관계행동이 근대적이었으며, 한편 신세대 기혼여성은 월평균소득($\beta = -.15$)이 적을수록, 취업주부($\beta = .09$)이고 자신의 용돈($\beta = .08$)을 따로 지출하고, 남녀평등($\beta = .08$)·가부장($\beta = .09$)·자녀양육($\beta = .11$) 등의 가족관계의식이 근대적일수록, 유행추구형($\beta = .09$)·적극활동형($\beta = .22$)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강할수록 가족관계와 관련된 가정경영행동이 근대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각각 18%, 13%이었다.

(2) 가정관리행동

〈표 4〉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경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남: 811명, 여: 834명)

독립변인	가족관계		독립변인	가정관리		독립변인	소비자 및 가계관리					
	종속변인			종속변인			종속변인					
	남	녀		남	녀		남	녀				
연령	-0.03	-.08*	-	-	-	-	-	.03	.06*			
학력	.06	.07*	-	-	-	-	-.06	-.07*	-			
자녀수	-	-	-	-	-	-	-	-	-.05	-.08**		
월평균 소득	-	-	-.04	-.15***	월평균 소득	-.03	-.07*	-	-	.02	.05*	
가족형태	-	-	-	-	가족형태	-	-.12	.10**	가족형태	-	-	
거주지역(광역시)	-	-	-	-	거주지역(광역시)	-	-	-	거주지역(광역시)	-	-	
거주지역(중소도시)	-	-	-	-	거주지역(중소도시)	-	-	-	거주지역(중소도시)	-.05	-.06*	
A	-	-	.07	.09*	A	-	-	-	A	-	-	
B	-	-	.07	.08*	B	-	-.09	-.09**	B	-	-.05	-.06*
유행추구형	-	-	.05	.09**	유행추구형	.14	.20***	.11	.15***	유행추구형	.07	.12***
개성중시형	-	-	-	-	개성중시형	-	-	-	개성중시형	-	-	
변화지향형	-	-	-	-	변화지향형	-	-	-	변화지향형	.04	.07*	
적극활동형	.10	.20***	.12	.22***	적극활동형	.12	.19***	.18	.26***	적극활동형	.14	.25***
남녀평등	.14	.25***	.06	.08*	계획적 관리	.06	.11**	.07	.11**	소비 성향	.18	.30***
가부장	-	-	.05	.09**	창의적 관리	.08	.11**	.10	.12**	소비자 권리	.07	.09**
자녀양육	.05	.11**	.05	.11**	통솔적 관리	-	-	-	소비자 책임	.05	.06*	
친족관계	.03	.07*	-	-	가사노동관리	.21	.28***	.14	.17**	가계 관리	.19	.18***
상·재례	-	-	-	-	건강·환경관리	.06	.07*	-	-			
상수	2.50		2.52		상수	1.46		1.52		상수	1.40	
F비	27.50***		15.13***		F비	54.10***		44.05***		F비	49.20***	
R ²	.18		.13		R ²	.32		.27		R ²	.36	

※ * p < .05 ** p < .01 *** p < .001

※ 가변인의 준거집단으로 가족형태는 확대가족, 거주지역은 서울, 남성 직업은 기능·서비스직, 여성의 직업업무는 '무', 용돈 유무는 '무'임.

남성 - A: 전문·관리직 B: 사무직, 여성 - A: 직업유무 B: 용돈유무.

신세대 기혼남성은 월평균소득($\beta = -.07$)이 낮을수록, 계획적($\beta = .11$)· 창의적($\beta = .11$)· 가사노동($\beta = .28$)· 건강 및 환경관리($\beta = .07$)의 가정관리의식이 합리적일수록, 유행추구형($\beta = .20$)· 적극활동형($\beta = .19$)의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강할수록 가정관리행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며, 또한 신세대 기혼여성은 핵가족($\beta = .10$)이고 용돈($\beta = .09$)이 있으며, 유행추구형($\beta = .15$)· 적극활동형($\beta = .26$)의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강할수록, 계획적($\beta = .11$)· 창의적($\beta = .12$)· 가사노동($\beta = .17$) 관리의식이 합리적일수록 가정관리행동이 합리적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의 설명력

은 각각 32%, 27%이었다.

(3) 소비자 및 가계관리행동

신세대 기혼남성의 경우 학력($\beta = -.07$)이 낮을수록, 유행추구형($\beta = .12$)· 변화지향형($\beta = .07$)· 적극활동형($\beta = .18$)의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강할수록, 소비성향($\beta = .30$)· 소비자권리($\beta = .09$)· 소비자책임($\beta = .06$)· 가계관리($\beta = .18$)의식이 건전하고 합리적일수록, 그리고 서울시($\beta = -.06$)에 거주할 때 소비자 및 가계관리행동이 효율적이었으며, 한편 여성의 경우 연령($\beta = .06$)이 많을수록, 자녀수($\beta = -.08$)가 적을수록, 월평균소득($\beta = .05$)이 많을수록, 용돈($\beta = .06$)이

있을 때, 유행추구형($\beta=.06$)·적극활동형($\beta=.26$)의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강할수록, 소비성향($\beta=.33$)·소비자권리($\beta=.23$)·가계관리($\beta=.17$)의식이 합리적인 일수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 및 가계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각각 36%, 42%를 보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가족관계 영역에서 남녀평등의식은 신세대 기혼남성에게서는 가족관계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었으나 이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는 예측력이 가장 낮은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내에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보다 남편 또는 아버지로서의 남성의 남녀평등의식이 필수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정관리행동 영역에서 신세대 기혼남성의 경우 가사노동 관리의식이 가장 예측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사노동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이 점차 향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가정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월평균소득이 적을수록 신세대 기혼남성의 가정관리행동이 더 합리적인 것을 비교해 볼 때 소득이 높아진다면 전통적인 남녀 성별분담에 의한 가부장적인 가정경영행동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소비자 및 가계관리행동의 경우 소비성향의식이 건전할수록 소비자행동이 바람직한 것을 의미하므로 물질지향적 가치가 높은 신세대들에게도 전통적인 덕목으로 강조해온 절약이나 검소한 생활의식은 자원고갈·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하는 현실점에서도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덕목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스타일 중 유행추구형과 적극활동형의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가정경영의 3영역에서 남녀 공히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세대 기혼여성의 경우 가정경영행동의 3영역에서 적극활동형의 라이프스타일변인의 예측력이 가장 큰 변인(소비자 및 가계관리 영역에서만 두번째)으로 나

타난 결과는 자신의 역할에 철저히 몰두하지만 주변에 관심을 가질 줄도 아는 적극활동형의 라이프스타일일이 신세대들의 가정경영에 바람직한 라이프스타일임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세대 기혼남녀가 유행추구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강할수록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가정경영을 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최초의 '본격적인' 자본주의 세대들(황동일, 1994: 60-61)로서 소비하는 방식이 기성세대와는 다를 뿐이지 무분별한 사치나 철없는 과소비와는 다르다는 주장(동아일보, 1993. 4. 18일자), 소비에 적극적이고 소비지향적이면서도 동시에 예산자와 사용처리자 등의 소비자 역할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인숙·정용선, 1995: 47)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성장과정에서 이미 자본주의를 학습하고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소비시대의 상품논리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경영행동에 대한 독립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경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군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 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2 단계에서 라이프스타일 변인, 3 단계에서는 가정경영의식 변인을 추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다음으로 라이프스타일 변인과 가정경영의식 변인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정경영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여 나타난 설명력<표 5-A>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경영의식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정경영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여 나타난 설명력<표 5-B>을 각각 전체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설명력<표 5-C>에서 제외시켰다.

첫째 가족관계행동 영역에서 신세대 기혼남성의 경우 1 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라이프스타일 변인군을 추가한 2 단

계에서는 설명력이 11%(P<.001)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의식 변인군을 추가한 3단계에서는 설명력이 20%로 9%(P<.00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1단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설명력이 4%(p<.001)에 그쳤으나,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추가한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1%(p<.001)로 증가하였으며, 3단계에서 가족관계 의식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14%(p<.001)로 증가하였으나, 증가량은 3%로 크지 않은 편이었다.

라이프스타일 변인과 가정경영의식 변인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신세대 기혼남성의 경우 가족관계행동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변인의 부가적 설명력은 4%(20%-16%), 가정경영의식 변인의 부가적 설명력은 9%(20%-11%)로 가정경영의식의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신세대 기혼여성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변인의 부가적 설명력은 5%(14%-9%), 가정경영의식 변인의 부가적 설명력은 3%(14%-11%)로 나타나서 라

이프스타일 변인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관리행동 영역에서 신세대 기혼남성의 경우 1단계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의미있는 설명력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음 2단계에서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19%(p<.001)로서 유의하였으며, 3단계에서 가정관리의식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33%로 2단계에 비해 14%(p<.00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한편 신세대 기혼여성의 경우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설명력이 4%(p<.001)로 나타났고, 이어서 2단계로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20%로 1단계에 비해 16%(p<.001)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가정관리의식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28%(p<.001)로 8%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변인과 가정경영의식 변인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신세대 기혼남

〈표 5〉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경영행동에 대한 독립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남: 811명 녀: 834명)

독립변인군		종속변인	가 족 관 계		가 정 관 리		소 비 자 및 가 계 관 리		
			남	녀	남	녀	남	녀	
1 단 계	사회인구학적 변인	상수	3.51	3.36	3.70	3.30	3.14	3.09	
		F 비	1.82	3.35***	1.43	4.29***	1.61	6.61***	
		R ²	.02	.04	.02	.04	.02	.07	
2 단 계	A	상수	3.17	3.05	2.97	2.70	2.39	2.46	
		사회인구학적 변인	F 비	7.23***	7.10***	14.48***	15.54***	19.91***	22.00***
		라이프스타일 변인	R ²	.11	.11	.19	.20	.24	.26
		R ² 증가량	.09	.07	.17	.16	.22	.19	
	B	상수	3.17	2.45	1.90	1.57	1.35	1.02	
		사회인구학적 변인	F 비	9.70***	5.33***	18.58***	13.60***	23.29***	33.36***
		가정경영의식 변인	R ²	.16	.09	.25	.19	.28	.35
R ² 증가량	.14	.05	.23	.15	.26	.28			
3 단 계	C	상수	2.33	2.35	1.63	1.43	1.30	1.04	
		사회인구학적 변인	F 비	9.51***	7.09***	21.63***	17.61***	26.43***	34.66***
		라이프스타일 변인	R ²	.20	.14	.33	.28	.36	.42
		가정경영의식 변인	R ² 증가량	.09	.03	.14	.08	.12	.16

※ * P < .05 ** P < .01 *** P < .001

※ A: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정경영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분석

B: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가정경영의식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정경영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분석

C: 전체 변인군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정경영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분석

성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변인의 부가적 설명력은 8%(33%-25%), 가정경영의식 변인의 부가적 설명력은 14%(33%-19%)로 가정경영의식의 설명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신세대 기혼여성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변인의 부가적 설명력은 9%(28%-19%), 가정경영의식 변인의 부가적 설명력은 8%(28%-20%)로 나타나서 라이프스타일 변인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및 가계관리행동 영역에서의 신세대 기혼남성의 경우,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결과 설명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2단계에서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24%($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 소비자 및 가계관리의식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36%($p<.001$)로 12%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한편 신세대 기혼여성의 소비자 및 가계관리행동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결과 7%($p<.001$)의 설명력을 보였고, 이어서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26%($p<.001$)로 1단계에 비해 19%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 소비자 및 가계관리의식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42%로 16%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라이프스타일 변인과 가정경영의식 변인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신세대 기혼남성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변인의 부가적 설명력은 8%(36%-28%), 가정경영의식 변인의 부가적 설명력은 12%(36%-24%)이었으며, 신세대 기혼여성의 경우에도 라이프스타일 변인의 부가적 설명력은 7%(42%-35%), 가정경영의식 변인의 부가적 설명력은 16%(42%-26%)로 나타나서 남녀 모두 가정경영의식 변인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관계 영역과 가정관리 영역에서 여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경영의식 변인이 라이프스타일 변인의 설명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라이프스타일 변인의 설명력이 더 높게 나타난 가족관계와 가정관리 영역에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차이가 1~2%로 지극히 미약하여 대체로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경영행동에는 가정경영의식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가정생활속에서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계획되고 수행되는 가정경영행동에는 동일한 역사적 · 문화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유사한 가치관, 정서, 행위유형 또는 생활방식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광범위한 의미의 라이프스타일보다는 신세대들이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갖게 되는 가정경영의식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라이프스타일 변인 중 적극활동형 라이프스타일 가정경영의 3영역에서 대부분 가정경영행동을 예측하는데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민주적인 사고로 합리성을 추구하고 자신의 관심사에 철저히 몰두하지만 주변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세대 기혼남녀의 라이프스타일은 가정경영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정경영의식을 매개로 하여 가정경영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남녀간의 독립변인 변인간의 설명력의 증가를 비교해 보면 3영역 모두 신세대 기혼남성에게서는 사회인구학적변인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미약하지만 유의하였다. 이는 여성에게는 실제로 가정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의식이나 심리적 특성을 물론이고 여기에 미약하지만 소득, 자녀수, 취업여부 등 가정 또는 개인적인 환경 여건에 따른 현실적인 제약이 영향을 미침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경영행동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정경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 영역과 가정관리 영역에서 신세대 기혼남성의 가정경영행동이 신세대 기혼여성에 비해 더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경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 관계 영역에서 신세대 기혼남성의 경우 연령·학력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적극활동유형의 라이프스타일과 남녀평등·자녀양육·친족관계·상제례 등의 가족관계의식 변인이었으며, 신세대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취업 여부·용돈유무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행추구형·적극활동형의 라이프스타일 변인 및 남녀평등·가부장·자녀양육 등의 가족관계의식 변인이었다. 가정관리 영역에서 신세대 기혼남성의 경우 월평균소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행추구형·적극활동형의 라이프스타일 변인 및 계획적·창의적·가사노동 등의 가정관리의식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신세대 기혼여성의 경우 가족형태·용돈유무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행추구형·적극활동형의 라이프스타일 변인 및 계획적·창의적·가사노동 등의 가정관리의식 변인이었다. 소비자 및 가계관리 영역에서 신세대 기혼남성의 경우 학력·거주지역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행추구형·변화지향형·적극활동형의 라이프스타일 변인 및 소비성향·소비자 권리·가계관리 등의 가계관리 및 소비자의식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신세대 기혼여성의 경우 연령·자녀수·월평균소득·용돈유무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행추구형·적극활동형의 라이프스타일 변인 및 소비성향·소비자 권리·가계관리 등의 가계관리 및 소비자 의식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경영행동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 변인 및 가정경영의식 변인 등의 독립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라이프스타일 변인과 가정경영의식의 부가적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가정경영의식의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신세대 기혼남성의 경우 가족관계영역에서 남녀평등의식, 가정관리영역에서 가사노동관리의식, 소비자 및 가계관리영역에서 소비성향의식 등이 가정경영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신세대 남성들의 가정내 역할수행의 정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해주므로, 여성

의 사회참여로 인한 2중역할에 대한 관심못지 않게 남성의 가정생활의 역할변화에 초점을 두고 남성의 가정내 역할 확대가 가정생활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프스타일 변인과 가정경영의식 변인의 부가적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가정경영의식의 신세대 기혼남녀의 가정경영행동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경영자로서 신세대들에게 가치로운 이상이 있고 건전한 삶의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원의 질적인 삶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선과제이므로, 의식을 행동으로 동기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과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정경영의식에 따라 명백한 가정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실제 가정생활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라이프스타일 변인 중에서 유행추구형과 적극활동형의 라이프스타일 성향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신세대들의 개인주의적 가치가 이기주의로 연장되고 있다든지 또는 물질적인 풍요속에서 일상의 소비가 낭비와 무절제로 흐르고 있다는 기성세대의 우려가 있으나, 자신의 역할에 철저히 몰두하지만 주변에 관심을 가질 줄도 알면서 현대의 자본주의 문화를 적당히 즐길 줄 아는 신세대의 이러한 생활양식을 이해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세대간의 격차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세대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사회전반에서 이해가 뒤따른다면 그들이 가정경영을 통해 지향하는 바와 실제 가정경영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세대간에 서로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함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을 좁힐 수 있을뿐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으로의 신세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조사대상자가 가정경영자로서 책임을 인식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신세대 기혼남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세대 미혼남녀인 경우에는 어떠한 라이프스타일 성향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성향이 그들의 가정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신세대들간에 결혼이 가지는 의미도 구체적

으로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계신자(1987). 도시주부가 인지한 소비자문제와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 85-100.
- 2) 고선주(1990). 기혼취업여성들 대상으로 한 친정 모친과의 상호기대에 관한 논문. 서울대 석사논문.
- 3) 김경숙(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대 박사논문.
- 4) 김경원(1989). 친족관계망 연대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5) 김명나(1989).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논문.
- 6) 김미경(1993). 소비자의 의복선택행동에 관한 연구. 숙대 석사논문.
- 7) 김미정(1995). 신세대 주부의 가정생활에 대한 가치의식 및 관리행동. 숙대 석사논문.
- 8) 김성희(1991). 도시 핵가족주부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 9) 김승희(1989). 신세대 라이프스타일유형의 특성에 따른 광고매체이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10) 김인숙·정용선(1995). 세대별 소비자향태도와 소비자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5), 39-50.
- 11) 김정원(198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적응에 관한 조사연구. 이대 석사논문.
- 12) 김혜연(1986).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의 분석. 이화여대 석사논문.
- 13) 김효숙(1988). 도시부부의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 14) 남은주(1983). 도시주부의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 15) 노자경·최은숙(1995).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 기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58-68.
- 16) 동아일보(1993.4.11~12.9일자). 신세대.
- 17) _____ (1995.1.23~9.11일자). 신세대 젊은이.
- 18) 류정순(1991). 생활양식에 따른 저축상품 속성별 중요도 인식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 19) 문숙재(198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의식과 실태조사. 이대 논총 37, 351-379.
- 20) _____ (1986). 가정경영. 서울: 학지사.
- 21) 박운아(1988). 소비자태도와 소비자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22) 박재홍(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가을호), 651-683.
- 23) 백경미(1995). 도시주부의 과소비성향과 영향요인. 서울대 박사논문.
- 24) 성혜영(1994). 도시주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도. 한양대 석사논문.
- 25) 송인숙(1993). 소비자의 구매중독성향 및 영향요인. 서울대 석사논문.
- 26) 옥선화(1989).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27) 이경희(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28)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 29) 이안나·신효식·우희정(1991).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 행동유형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37-154.
- 30) 이인희(1983). 가정관리학. 서울: 수학사.
- 31)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 32) 이정숙(1994).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대 박사논문.
- 33) 이정연(1991). 한국도시남편이 지각한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 34) 이정우(1980). 가정관리성취에 관한 연구. 숙대 박사논문.
- 35) _____ 외 7인(1996). 신세대 기혼남녀의 라이프 스타일 및 가정경영의식. 대한가정학회지 34(6), 367-385.

- 36) 이형실·옥선화(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 31-44.
- 37) 이해경(1986). 부부권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대 석사논문.
- 38) 장명옥(1976). 우리나라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의 실태조사와 그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 가정대학 논문집(1). 21-53.
- 39) _____(1990). 가정관리학. 서울: 교문사.
- 40) 장혜경(1992). 도시주부의 소비자의식과 자원보전행동에 관한 연구. 숙대석사논문.
- 41) 전미경(1992). 도시저소득층 부인의 친족관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 42) 조은정(1994). 신세대소비자의 주거가치와 주거선호. 서울대 박사논문.
- 43) 조혜선(1990). 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세대차이 연구. 연대 석사논문.
- 44) 최동숙(1991).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대 박사논문.
- 45) 통계청(1995). 한국의 사회지표.
- 46) 한경혜(1994). 동반자적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가족. 열린사회와 가족. 한국여성개발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47) 한국사회학회(1990).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
- 48)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 49) 한국일보사(1990). 신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상·하권.
- 50) 한남제 외(1994). 한국가족관계의 문제-방황하는 자녀, 소외된 노인. 서울: 다산출판사.
- 51) 한상순(1979). 서울 주부들의 가정관리의실태조사. 연구보고 3. 건국대 생활문화연구소. 5-17.
- 52) 현미정(1990). 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 53) 현실문화연구(1993).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 54) _____(1994).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 55) 홍현주(1986).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 56) 황동일(1994). 新세대, SIN세대, 후세대 그리고 자본주의.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현실문화연구. 54-71.
- 57) 酒井ノブ子(1969). 家庭管理能力の研究. 慎書店.
- 58) Berkowitz, L. & Lutterman, K. G.(1978). The traditional socially responsible personality. Public Opinion Quarterly. Vol.32.
- 59) Metzzen, E. J. (1963). The importance of consumer competencies for young woman & implication for consumer education. 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67-78.
- 60) Nickell, P. L. & Dorsey, J. M. (1967). Management in family living. 4th ed.. John Wiley & Sons. Inc.
- 61) Nickell, P. L., Rice, A. S. & Tucker, S. P. (1976). Management in family living. 5th ed.. John Wiley & Sons. Inc.
- 62) Plummer, J. T. (1974). The concept and application of life style segmentation. Journal of Marketing(38). 33-37.
- 63) Rosenthal, C. (1985). Kin keeping in the famili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 64) Sussman, M. B. (1985). The family life of old people. In Binstock.
- 65) Voydanoff, P. (1987). Work and family life. Beverly Hills. C. A: Sage Publication.
- 66) Zaltman, G. & Wallendorf, M. (1983). Consumer behavior basic finding and management Implication. 2nd ed.. John Wiley & Sons.